

권오신의 문화산책

매헌 권사민의 시문학

梅軒 권士敏 詩文學

매헌 선조가 남긴 시문과 시는 신(神)의 가슴을 울릴 문장이었다. 5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장을 마주하면 필립 현상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옥연서당

공은 임진왜란 발생 50여일 만에 경주 모전산에서 복상하는 왜군의 보급부대를 공격, 치명상을 입히는 등 경주 근동에서 가장 빠른 창의를 하신 의병장이다.

매헌(梅軒, 1557~1634) 선조는 지난 5백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대에 경주(慶州)에서 태어 났다. 30대에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맞았는가하면 무오(戊午) 갑자(甲子) 기묘(己卯) 을사(乙巳) 사화(士禍)의 영향으로 사림(士林)들이 출사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시대였다.

매헌공이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西厓)에게 올린 소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역병과 굶주림' 관리들의 가림주구'로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어 백 명에 한 명꼴로 살아남던 불행한 시기였다. (梅軒實紀, 徵誌錄)

매헌 선조하면 임란 창의 공신으로 더 이름이 나 있으나 실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시기에도 학문을 숭상한 예모(譽髦, 학문이 뛰어나고 어진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시였다. 근사록(宋대 朱子學 入門書)을 머리말에 두고 지내실 만큼 매헌 선조의 학문은 한 시대를 덮었고 신(神)의

가슴을 울릴 문장이었다.

국보 153호 일성록(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유산: 영조 28년(1752)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책, 승정원 일기와 같다.)엔 의병장으로 서의 일생과 효행스러운 문장가로 여러 차례 기록 됐다.

정조 6년(1782) 어전회의에서 당시 영의정(領議政) 서명선(徐命善)이 상정한 안건대로 영남의 선비 권사민에게 경영찬관관과 좌승지로 추증 할 것을 왕명으로 의결 했다. 정조 21년(1797) 6월 9일에 가진 어전 회의에서도 영남 관찰사와 승정원에서 올린 안건을 심의, 정려(旌闈)를 왕명으로 내렸다.

조예(造詣, 깊은 학문 또는 뛰어난 글재주)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선조가 내린 언양현감 교지를 단정 버리고 성리학(性理學)과 경서

(經書)에 빠진 山林 處士로 평생을 도회(道會, 스스로 학문과 재주를 세상에 숨기고 산다는 뜻)하게 살다 가신 분이시다.

십자어 아들(諱 植 1577~1648)과 두 손자(諱 植 1607~1669, 格 1616~1691)에게 까지 진사(進仕) 이상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인재 양성에만 평생을 바쳤다. 출사하는 제자들에게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먼저 닦고 남을 가르치는 뜻)을 먼저 당부하셨다.

6, 7세에 운율(韻律)의 고저를 깨닫자 아버지 귀봉(文正公, 예조 및 병조 정랑, 병마절제사)공이 "이런 인재가 늦게 태어나니 나의 스승(梅齋 李彦迪)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구나!"고 크게 탄탄하셨다고 한다. 소년기에 들어서부터 효제충신(孝節忠信)도를 머리말에 두고 지낼 만큼 효손(孝孫)으로 경

주(慶州)향에 이름을 날렸다.

16, 7세에 이르러서는 경서(經書: 사서오경 등 유교의 가르침을 적은 책) 자사(子史: 諸子의 글)를 모두 외워 버렸으며 그 나이엔 읽기조차 힘들었던 주역과 음학(音學)까지 통째로 외워 가슴에 담았다.

한번 책을 잡으면 경주까지 걸음, 학문을 논하기를 희망한 재상의 제의도 거절하셨을 만큼 독서삼매에 자주 드셨다. 이십대에 이미 문장이 빼어나고 운문(韻文)과 시로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주역까지 꿰뚫는 학자로 명성을 얻었으나 벼슬 운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았다.

선친의 권유로 초시, 생원시, 회시(중앙과 지방에서 初試에 합격한 선비들이 한양에서 보는 2차 시험)에 무려 14차례나 입격(入格)하였으나 어사화(御賜花, 대과급제자에게 주는 종이꽃 관모)를 쓰지는 못하였지만 7탄 훈도(訓導)를 지내면서 후학을 길렀다.

배울 길이 막힌 궁벽한 촌락에서 학문이 뛰어나신 선비가 오셨으니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 강남 과외선생이 제 발로 궁벽한 시골을 찾아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때 진사와 생원, 초시, 회시의 합격자가 백 명이 넘었고 어사화라는 대과 급제자가 9명이 나왔다.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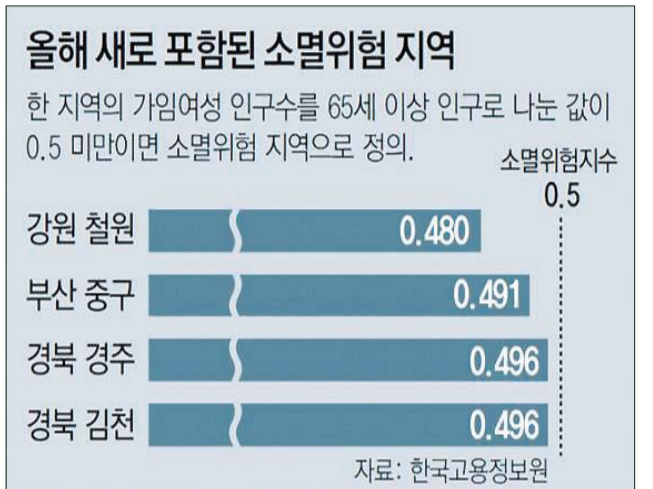


경주 반월성 연꽃 단지에서 / 사진 작가 권영만 촬영

저출산 고령화로 전국 228개 중 89개 시군구 소멸위험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지자체 Top10		젊은 지자체 Top10	
순위	소멸위험지수	순위	소멸위험지수
1	경북 의성군 0.158	1	울산 북구 2.034
2	전남 고흥군 0.167	2	대전 유성구 1.972
3	경북 군위군 0.174	3	경북 구미시 1.905
4	경남 함안군 0.174	4	경기 오산시 1.878
5	경남 남해군 0.183	5	경기 화성시 1.734
6	경북 청송군 0.195	6	경주 광안구 1.723
7	경북 영양군 0.196	7	인천 연수구 1.686
8	경북 영덕군 0.203	8	경기 수원시 1.686
9	전남 신안군 0.203	9	인천 서구 1.627
10	경북 봉화군 0.204	10	경기 시흥시 1.62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7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자체 228곳은 지자체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은 13일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전국 228개 시군구와 3,463개의 읍면동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를 발표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기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이다.

기임 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인 0.5 미만이면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여자 컬링대표팀 4명의 고향이자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이 전국에서 소멸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제 9위로 나타나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도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도서지역이란 지리적 제약을 통해 2022년 말까지 AI를 적극 활용한 시범병원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사람이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AI만 근무하는 호텔이 등장한 지 오래다.

30여년 전만해도 신안군 도초도에서 가장 큰 동네인 고란리의 가옥 수는 100여 가구를 훨씬 넘어섰

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30여 가구만 겨우 남았을 뿐이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70~8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는 4개에서 1개만 남아 있고, 중학교는 인접하고 있는 비금도로 통합되어 버렸다. 고란리 마을에 들어서니 주민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 많은 소도 염소도 개도 닭도 고양이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다.

어쩌다 만난 주민에게 왜 소, 닭 등의 가축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니 주민들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가축까지 키울 수 있겠느냐고 답변한다. 바둑판처럼 농지정리가 잘 된 넓은 논에는 벼가 심어져 있었지만 밭은 경작할 요소도 한 몫 하는 듯하다.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떠난 지 오래되었다.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었다. 도대체 마을 주민들은 어디에 있는냐고 물었다니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정에 계신다고 말해 주었다. 노인

정에 들어서니 머리가 백발인 할머니들만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노인정은 고령화를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외지에서 귀농한다고 들어와서 사는 가구가 딱 1가구 있기는 있다고 살짝 귀뜸해 주었다. 그러나 마을은 예전의 활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저 텅 비어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같은 도서벽지만의 이야기기 아니다. 특히 강원 철원군,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는 2018년에 새롭게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멸위험지역이 점점 도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또는 안동권씨 대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AI가 기반이 되어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뛰어넘어 인간의 지적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AI는 크게 약한 AI와 강한 AI로 나눌 수 있다. 약 AI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 AI는 지능에 자율의지까지 갖춘 AI를 말한다. 인공지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도 약 AI의 문제와 강 AI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약 AI의 사례는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5월 미국 뉴욕의 100년 전통 로펌인 베이

컨앤호스텔러가 AI 변호사 로스(ROSS)를 처음 '체용'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 2월 16일 미국 ABC 방송 퀴즈쇼 '제퍼디!' (Jeopardy!)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이 퀴즈쇼 사상 최대 삼금 우승자 브래드 루터(Brad Rutter)와 7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켄 제닝스(Ken Jennings)와의 대결에서 압도적 차이로 승리한다.

한국의 첫 인공지능(AI) 변호사도 지난 2월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변호사만 150여 명인 국내 10위권 로펌인 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유렉스' 얘기다. 유렉스는 그동안 담당 변호사와 법률 비서 여러 명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몇 달씩 걸려 작업하던 관련 법 조항 검토와 판례 분석 등 사전 리서치 업무를 20~30초 만에 해치우는 피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변호사 상당수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다가와 있다.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AI는 IBM 왓슨이다. 은행, 병원, 보험회사, 통신회사, 법무법인 등에 '취직'한 왓슨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지도도 바꿔놓고 있다.

예고는 의료계에서 먼저 현실화됐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은 2016년

12월 5일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통해 왓슨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했다. 이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진료·임상뿐 아니라 유전체·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춘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의 서막을 알린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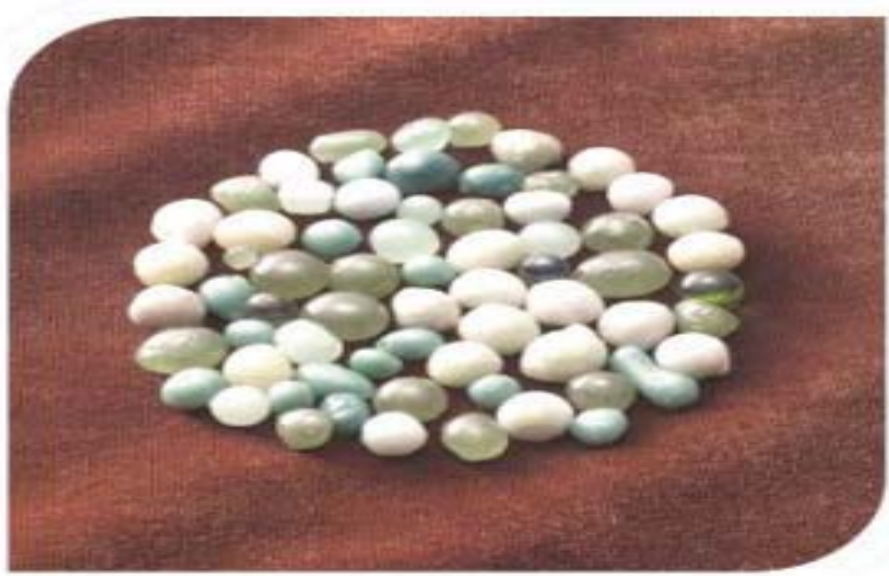
왓슨은 2016년 길병원을 시작으로 2017년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건양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연이어 도입했다.

일본은 정부와 산업계 및 학계의 제휴를 통해 2022년 말까지 AI를 적극 활용한 시범병원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사람이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AI만 근무하는 호텔이 등장한 지 오래다.

글: 권성재

장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사는 묘역관리 및 화장 후 유골 보존에 세계 발명 특허 장치에 의한 사리화(봉안옥)로 생성시켜 영구 정결 보존하도록 납골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 현재 전국 4,000여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표준 봉안함



기독교 성서형 봉안함



불교형 봉안함

◆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의 안내

- ◆ 고인을 깨끗이 봉안할 수 있어 사자의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고 유족에게 안심을 통한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 ◆ 유골이 구슬(사리) 모양으로 생성되어 거부감과 변질이 없습니다.
- ◆ 영옥(靈玉)은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 ◆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돌보지 않는 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에게 효(孝)사상을 고취시킵니다.



주식회사 본향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345번지 165, 홈페이지 : www.holytec.com / 상담문의 : 010-5224-0079 고문 권영순